

# 끝 모르는 폭주... 'SKY캐슬', 드라마가 美쳤다



매일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다. 매화가 역사고 매화가 신기록이다. JTBC 금토드라마 'SKY캐슬'(유현미극본, 조현탁 연출)이 매회 신기록을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있다.

미미했던 1.7% 첫 출발 이후 2회 차에 4.3%를 찍었고, 지난 12월 29일 방송된 12.3%로 JTBC 역대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후에도 끝이 없는 상승세를 이끌어내며 종편과 케이블

을 넘어 지상파까지 적수가 없는 역대급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지난 5일 방송된 14회는 15.3%로 첫 방송보다 약 10배 가량 상승한 시청률을 자랑했다.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전국기준)

속된 말로 이 드라마는 '돌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SKY캐슬'이다. 매회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모자라, 역대급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공

감을 자극하며 눈을 떼 수 없는 전개로 이어가는 것. 방영 전 출연진들의 정의처럼 '입시에 미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 시청자들은 왜 이 SKY캐슬에 열광하고 있을까.

▶ 다음 회를 안 볼 수 없는 엔딩 마법

SKY캐슬'을 보는 시청자들이 입

## 매회 신기록 달성하며 새로운 역사 만들어

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을 화려하게 만드는 엔딩이다. 역대급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엔딩에 심어놓으며 시청자들에게는 다음 회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 되는 것. 지난 1회 엔딩에서는 이명주(김정나)의 충격 자살 장면이 그려지며 역대급 엔딩을 그려냈고, 김혜나(김보라)의 정체체를 알아버리는 한서진(염정아)의 모습 그리고 남편 살해 용의자였던 김주영(김서형)의 실체를 알게 되는 한서진의 갈등 등이 그려지며 시청자들을 시청의 굴레에 가둬버렸다. 여기에 지난 14회 엔딩에서는 김혜나의 추락 장면이 전파를 타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미 퍼질대로 퍼져버린 스פו일러로 시청에 방해될까 걱정되던 김혜나의 모습이 다음회를 더욱 궁금해지게 만들었다.

▶ 美쳐버린 배우들, 역대급 연기의 향연

진정 미쳐버린 연기의 향연이다. 염정아와 김서형의 대립리인을 필두로 이태란, 오나라, 윤세아로 이어지는 엄마들의 연기력에 시청자들은 그저 박수를 치며 바라볼 뿐. 얼굴

근육 하나 하나를 통제하며 연기하는 염정아와 그에 맞서는 김서형, 그리고 극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자 치지 막장으로 가려는 시청자들의 판단력을 통제해주는 이태란의 연기 도 일품이다. 게다가 코믹을 담당한 오나라나 자식을 앞에서 약한 엄마에서 강인한 엄마로 성장하며 남편을 향한 울분까지 토해낸 윤세아의 연기까지 시청자들의 눈을 그대로 사로잡았다.

이들의 남편으로 이어지는 연기 라인도 불만한 포인트 정준호와 최원영의 갈등이나 김병철의 주먹을 부르는 열연, 그리고 조재윤의 코믹함까지 'SKY캐슬' 속에서 절대 없어서 안되는 포인트로 작용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역들의 연기는 기발박수를 부르는 수준이다. 매일 짜증의 끝을 찍어가는 강에서 역의 김혜윤이나, 그에 맞서며 어른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는 연기력으로 긴장감을 높이는 김보라, 그리고 쌍둥이인 김동희와 조병규, 송건희, 막내라인 이지원과 이유진까지.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히는 연기 영재들의 등장도 참으로 반갑다.

▶ 고급진 막장의 품격

아무리 고급진 캐슬을 배경으로 하지만, SKY캐슬은 분명 '막장'이다. 조금 더 고급진 막장일 뿐.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막장요소들은 전부 다 등장한다. 학력위조급 입학 시기를 치는 딸이나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들들에게 너그러워지는 어머니, 그리고 출생의 비밀은 물론 신분 세탁까지 등장하며 막장의 요소를 전부 다 담은 것이거나 다름없는 드라마라는 것. 그러나 'SKY캐슬'은 이를 조금 더 고급지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자극했다.

막장보다 더한 현실 속에서 SKY캐슬은 촘촘하게 짜여진 스토리라인을 자랑한다. 4인의 엄마들과 김주영으로 얽힌 인간관계가 스토리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관계도 재미를 더한다.

여기에 병원 이야기까지 등장하며 'SKY캐슬' 속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화합이 한 눈에 펼쳐지며 뚜렷한 주인공(보노)과 모든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얽혀 펼쳐지는 것. 차마 알지도 못했던 갈등 관계와 심리가 등장하며 시청자들에게는 어느 인물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됐다.

그저 매화가 신기록이고 역사다. 앞으로 얼마나 더, 얼마나 더 큰 상승세를 보이게 될지 가늠이 안될 정도의 열풍의 연승이 될 전망이다.

## '9년차 걸그룹' 에이핑크, 장수의 비결



이번에 더 매력적으로 녹여냈다. '유유'(유유)은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과 타협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몽환적인 댄스곡이다. '유유'(유유)이 처음 공개된 '핑크 컬렉션'의 특별한 의미 또한 인상적이다. 에이핑크는 지금까지 사방방이온 화이트, 완벽히 다른 새로운 레드 두 색이 만나 만들어진 팀 컬러를 이번 '핑크 컬렉션'에 모두 전시켰다. 멤버들이 생각하는 '유유'(유유)의 포인트는 '컬러'로의 변화다. 박조용은 "오래 전부터 콘셉트 변화에 대해 고민해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악도 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라며 "지난해 '도 없애' 때가 저희 생애에 딱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성숙하고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취지를 소개했다.

데뷔 9년차를 맞은 만큼 정은지는 "정말 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데뷔 초부터 장수 아이돌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팬 분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공연과 다집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활동에 대해 손나은은 "시작이 좋다"면서 "팬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에이핑크의 '유유'(유유)를 비롯해 미니 8집은 7일 오후 6시 공개 매력과 재미 있는 신곡이 사용법을

이번에 더 매력적으로 녹여냈다. '유유'(유유)은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과 타협하지 않고 좋은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몽환적인 댄스곡이다. '유유'(유유)이 처음 공개된 '핑크 컬렉션'의 특별한 의미 또한 인상적이다. 에이핑크는 지금까지 사방방이온 화이트, 완벽히 다른 새로운 레드 두 색이 만나 만들어진 팀 컬러를 이번 '핑크 컬렉션'에 모두 전시켰다. 멤버들이 생각하는 '유유'(유유)의 포인트는 '컬러'로의 변화다. 박조용은 "오래 전부터 콘셉트 변화에 대해 고민해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악도 같이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라며 "지난해 '도 없애' 때가 저희 생애에 딱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성숙하고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취지를 소개했다.

데뷔 9년차를 맞은 만큼 정은지는 "정말 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데뷔 초부터 장수 아이돌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팬 분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좋은 공연과 다집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의 활동에 대해 손나은은 "시작이 좋다"면서 "팬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에이핑크의 '유유'(유유)를 비롯해 미니 8집은 7일 오후 6시 공개 매력과 재미 있는 신곡이 사용법을

## '주먹왕랄프2·아쿠아맨', 1월 박스오피스 외화 점령



영화 '주먹왕랄프2: 인터넷 속으로'와 '아쿠아맨' 그리고 '보헤미안 랍소디'가 2019년 1월 박스오피스를 점령했다. 과연 1월 박스오피스에 한국영화들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역시도 관심사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주먹왕랄프2: 인터넷 속으로'(필 존스턴 리

지 무어 감독)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26만 8188명을 동원하며 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주먹왕랄프2'의 총 누적 관객수는 51만 2993명이다.

2위는 같은날 20만 9138명을 동원한 '아쿠아맨'이다. '아쿠아맨'은 '주먹왕랄프2' 개봉 전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며 누적 관객수 436만 60130명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외화들이 박스오피스의 1, 2위를 점령한 상황

에서 '보헤미안 랍소디'가 또 다시 역주행하면서 전란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보헤미안 랍소디'는 7만 4448명의 관객이 관람하며 총 관객수 864만 7200명을 동원했다. 천만까지는 단 46만 관객만이 남았다.

외화들이 2019년 초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가운데, 'P.M.C: 더 벵커'가 4위로 한국영화의 체면을 지켰다. 6만 1442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며 누적 관객수는 1501만을 넘어섰다.

'주먹왕랄프2'의 시리즈 전편인 '주먹왕랄프'는 2012년 12월 개봉해 100만 관객도 넘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후속편이 흥행하고 있다는 점 역시 흥미롭다. 해외 평단의 극찬과 입소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외화들이 박스오피스의 1, 2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외화가 박스오피스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외화들의 침투로 인해 싸웠던 한국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역전을 꿈꾸고 있다. 오는 9일 유혜진, 윤계상의 '발모아'와 진영, 박성웅의 '내안의 그놈'이 바로 그 주인공

발모아는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1940년대, 까마귀 관수(유혜진)가 조선어학회 대표 정환(윤계상)을 만나 사전을 만들기 위해 비밀리에 전국의 우리말을 모으는 과정을 그린 휴먼드라마. '내안의 그놈'은 코미디 영화로 우연한 사고로 목이 뒤틀린 중년 남성(박성웅)과 고등학생(진영)의 이야기를 그린다. 진영이 고등학생 감동천 역할을 박성웅이 재벌 조식 사장 장관수 역할을 맡았다.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두 영화로 과연 박스오피스에 새로운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음력 12월 2일)

<p>▶<b> 쥐띠</b> 중개업하는 사람은 재치있게 일 처리하면 좋은 성과가 있겠다. 그러나 욕심을 너무 부리면 들어올 복도 놓치게 되니 조심할 것. 여러 사람과 합작해 시작한 일은 재미가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형편이 되니 처사에 주의하라. 증권업은 불황.</p>	<p>▶<b> 원숭이띠</b> 어떠한 난관에 부딪쳐도 침착히 처리해야 한다. 1, 4, 9월생은 형제 아니면 자매가 이성 문제로 불화한다. 때로는 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참고하라. 애정은 서로 분수를 지키면서 경계함이 좋겠다. 사, 자, 천 생씨는 길.</p>	<p>▶<b> 원숭이띠</b>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면 힘만 들 뿐 결실하지 못한다. 4, 9, 11월생은 아이들만 자라면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막상 시작해 보니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2~3개월 지나면 재미를 볼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것.</p>
<p>▶<b> 돼지띠</b> 부부간 참견이 너무 많으면 불화하기 마련. 작은 일은 넓은 야망으로 이해하면서 인내심을 키워라. 연예업이나 연구직 종사자는 소원을 이룰 행운의 날. 북동쪽 사람 힘이 세겠다. 그러나 억지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면 무덤을 파는 격이다.</p>	<p>▶<b> 돼지띠</b> 한평생 언어적 장벽이 살 수 있는 부부는 몇이나 되겠는가. 상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면 어떠한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기, 모, 차 생씨 1, 2, 10월생은 여자 문제로 혼자 고민이 크겠다. 북쪽 사람과 상의하라.</p>	<p>▶<b> 닭띠</b>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는 작은 것부터 해야 손실이 적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좋겠으나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는가. 5, 7, 10, 12월생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보는 날이다. 남쪽에서 귀인이 온다.</p>
<p>▶<b> 호랑이띠</b> 방향하는 마음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나를 움직일 비결은 나 자신밖에 없다. 산책이라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보라색과 녹색이 길. 4, 5, 6월생은 빨간색이 좋다. 의로계, 식재계, 납품업 종사자는 형편이 풀리는 날.</p>	<p>▶<b> 닭띠</b>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가 필요하다. 무슨 일을 하든 확고한 계획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한다. 남, 동쪽 일은 늦어지고 있다. 10, 11, 12월생은 사족을 피하라.</p>	<p>▶<b> 개띠</b> 포부를 너무 크게 품지 말라. 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에 끌려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린다면 더 큰 손해를 본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이다. 연상의 여자과 마찰이 있다. 운전 주의.</p>
<p>▶<b> 토끼띠</b> 여자는 남자가 하는 일에 관여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뛰고 싶으나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고민이 풀린다. 2, 8, 10월생은 갈하나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p>	<p>▶<b> 개띠</b> 여러 사람 도움으로 호황을 맞을 운이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유대관계에 힘쓴 것이 복이 돼 귀인을 만난다. 수없이 이것저것 해보며 자신감을 잃었으나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 1, 3, 9월생은 오후를 넘기기 전 매대 계약 체결해야 좋다.</p>	<p>▶<b> 돼지띠</b> 직장에서는 상하 관계로 신경이 날카로운데 부부 사이 불화가 있겠다. 3, 7, 10월생은 침착하게 처신하고 인내심을 가질 것. 기, 자, 비 생씨는 동, 북쪽에서 금전 관계가 잘 풀린다. 영업 활동은 먼 곳일수록 수익이 있다. 비밀은 철저히 지키라.</p>